



2004년도 제 2회 이사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5월 11일 오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 바이올렛룸에서 허원준 회장 외 KRCC 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제 2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화학방재정보센터 운영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학방재정보센터는 화학물질사고와 관련한 24시간 비상전화응대 서비스가 주 업무로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정보 외에도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화학제품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화학산업 공동의 민간 방재정보센터 추진을 위하여, 인제대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화학방재정보센터에 참여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KRCC 위원회 확대 개편

KRCC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미실행코드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 산하에 제품전과정책임주의(Product Stewardship) 및 유통(Distribution)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고, 기존의 비상대응소위원회는 '지역사회인식과비상대응(Community Awareness and Emergency Response)소위원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환경안전팀이나 RC코디네이터 외에도 회원사의 홍보, 기술, 물류안전 담당자 등이 선임되어 각 위원회별 역할에 따른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Responsible Care Weekly 서비스 및 KRCC 웹진 제작

한국RC협의회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신속한 정보와 소식 전달을 위하여 KRCC 주간정보 레터 "Responsible Care Weekly"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www.krcc.or.kr)에 게재된 주간 환경·안전·보건 정보와 관계법령, KRCC 소식 등을 요약하여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으로, 매주 화요일 회원사 및 관계자에게 전달되며, 정보나 소식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또 분기별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의 내용이 회원사의 보다 많은 임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PDF파일로 전달하는 KRCC웹진을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RC Weekly 신청 : krcc@krcc.or.kr)



KRCC 홍보위원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7월 2일 오후 4시 협회 회의실에서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창수 룬엔드하스코리아 이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Responsible Care 연례보고서 발간, 뉴스레터 연간 발행 계획, Outreach 활동 등 홍보위원회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례보고서 추진을 위하여 발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 및 화학산업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Outreach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환경 · 안전 · 보건 아카데미 개최

KRCC는 「2004년 중소기업 환경 · 안전 · 보건 아카데미」를 한국다우케미칼의 후원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화학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유사시 대응 능력 향상, RC 활동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각 지역의 중소화학업체 환경안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5월 2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금년도 제 1차 아카데미가 개최된 데 이어, 6월 25일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 2차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서울 행사에 참석한 허원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옳은 일이면 한다는 윤리와 자부심에 기초를 둔 Responsible Care는, 동료들에게도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며,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중소화학기업도 Responsible Care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에 총 10회에 걸쳐 RC활동의 필요성과 개요, RC추진 사례 및 성과를 소개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추진 동향 및 안전설계, 비상시 안전조치,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저장 방법 등 실행코드에 대한 주제발표와, 경영전략으로서의 RC에 대한 전체 토론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화학산업의 환경 변화와 자발적인 RC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KRCC 사무국에서 설명한 후, 환경 · 안전 · 보건 실행을 위한 RC 각 코드를 코드리더가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화재, 폭발 및 누출사고 등의 예방을 통한 안전 설계 및 운전향상방법인 공정안전 코드는 윤춘석 코드리더(삼성아토피나)가 설명하였고, 작업장 내 근무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법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코드는 이수영 코드리더(SK)가 소개하였다. 비상시 안전조치 대책 강구 및 인근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 비상대응 코드는 이형식 코드리더(호남석유화학)가 발표하였다. 대기, 수질,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저감을 통해 근로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오염방지 코드는 최동규 코드리더(효성)가 설명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이 유통 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도입, 추진될 예정인 유통 코드에 대해서도 김위형 코디네이터(한국다우케미칼)이 자사의 실천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강연 후 강연자를 패널로 하여 이어진 토론은 황무영 실행위원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화학산업의 안전과 신뢰회복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지 않다"는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와 정책, RC 활동에 대한 참여방법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 · 안전 · 보건 아카데미」는 회를 거듭하면서 환경안전에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 환경 · 안전 · 보건 아카데미 일정〉

구 분	개최일자	규 모	개 최 지	대 상 지 역
제 1 차	2004. 5. 25	100명	부산(롯데호텔)	부산 · 경남지역
제 2 차	2004. 6. 25	100명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 · 경인지역
제 3 차	2004. 9. 10	100명	대 구	대구 · 경북지역
제 4 차	2004. 10. 8	100명	대 전	대전 · 충청지역
제 5 차	2004. 11. 12	100명	광 주	광주 · 호남지역

미래를 위한 준비, LG화학 아웃리치 프로그램



LG화학 유근창 상무
Yoo, Keun-chang, Vice President
LG Chem, Ltd.

화학은 우리들 일상생활의 원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기초 과학이다. 화학산업의 대표적 제품인 화학비료와 합성섬유,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건축자재는 인류의 의·식·주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전자, 정보통신과 같은 첨단 산업의 핵심부품도 화학 산업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학산업은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으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맞물려 화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화학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하여 LG화학은 'Responsible Care'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 화학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LG화학은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화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전반적인 화학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미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계획해 왔다.



2003년 9월 관련 분야의 사내 전문가들로 'Outreach Program TFT'를 조직하고 해외 선진기업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5월 27일 '이동화학교실' 발대식을 시작으로 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LG화학의 Outreach Program은 실험장비를 갖춘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을 직접 방문해 교육 및 공연을 실시하는 '이동화학교실'과, 어린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단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속의 화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 캠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동화학교실

LG화학 '이동화학교실'은 실험 장비를 갖춘 특수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평소 화학을 비롯한 과학에 대한 체험을 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직접 방문해 화학쇼, 화학실험 등을 실시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동화학교실"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화학에 대한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화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나아가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한양대학교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04. 6. 23 충남 서산 명지초등학교〉

'이동화학교실'은 올해 6월부터 우선 전국의 사업장 주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1회 활동하고 있으며 점차 일반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 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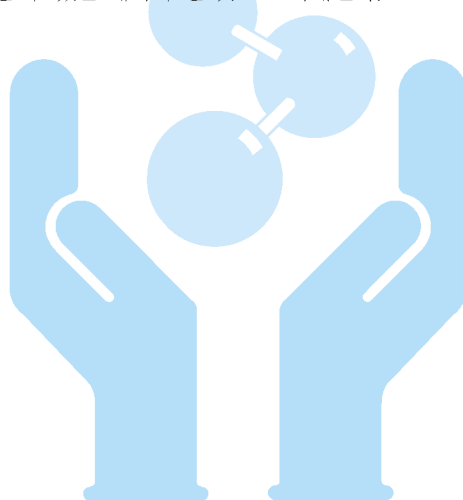
LG화학의 '화학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화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교육을 통해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합숙을 통한 또래들의 집단활동으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화학 캠프'는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생활 속에서 화학 발견하기, 화학실험 등의 화학관련활동과 인성개발 및 심신수련활동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LG화학은 여름방학기간에 '재미있는 화학! LG화학 여름 캠프'라는 슬로건으로 첫 화학 캠프를 서울, 청주, 울산, 여수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전국 각 지역으로 화학 캠프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

'이동화학교실', '화학 캠프' 등 LG화학의 Outreach Program은 20세기 인류 문화를 주도해 온 화학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화학산업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LG화학이 보유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화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화학분야, 나아가 이공계열에 대한 관심과 진학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미래 과학산업 발전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C와 통합 안전 · 환경 · 보건 · 품질(SHE&Q*) 관리체계



이수영 부장 Lee, Su-young,
SK주식회사 안전환경경영팀
Senior Manager, SK Corporation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된 OECD 국제워크숍에서는 안전 · 보건 · 환경 및 품질(SHE&Q)의 시스템 통합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상당수의 참석자가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03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환경위원회 산하 화학사고 전문가 그룹회의에서는 SHE&Q의 통합모델 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채택, 사업의 주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임하고 현재 2007년을 완성 목표로 하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SHE의 통합을 넘어 SHE&Q의 통합이 향후의 새로운 기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실정은 아직도 많은 기업이 SHE의 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며, 일부 기업 중심으로 SHE 통합시스템의 필요성 및 효과를 인식하여 각 사의 특성에 적합한 방향으로 도입,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다.

이 글에서는 SHE 통합시스템의 필요성, 개념, 도입사례 및 향후 모든 화학기업에게 SHE 통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RC의 역할 및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SHE&Q의 통합과 RC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SHE 통합시스템의 필요성

SHE 통합시스템은 환경분야의 경영체계인 ISO 14001과 안전보건분야의 경영체계인 OHSAS 18001(또는 KOSHA 18001/KGS 18001)의 통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SHE&Q 통합의 경우는 여기에 ISO 9001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국내 법규에 의해 도입된 PSM(공정안전관리시스템) 또는 SMS(가스안전관리시스템)와 같은 공정안전관리제도 역시 SHE 통합시스템 내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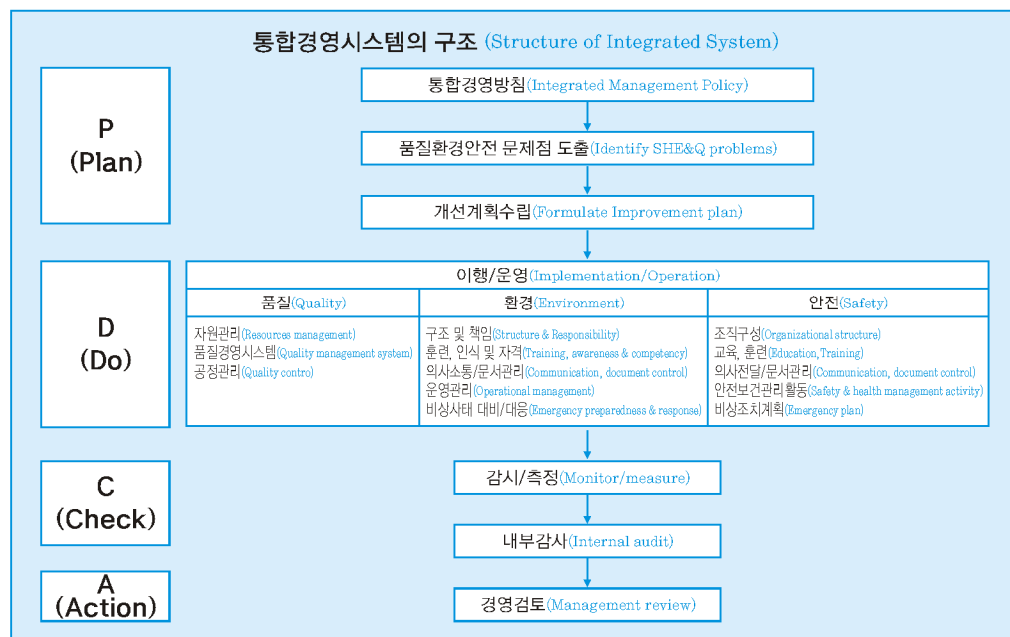
* Safety, Health, Environment and Quality

첫째, 안전, 보건 및 환경 문제를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하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화학산업의 경우 법적 의무로 인한 PSM/SMS제도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ISO 14001 및 OHSAS 18001 등 각종 법적 요구와 경영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이로 인해 관리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인력 및 비용 등의 투입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안전,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전, 보건 및 환경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근 이해관계자를 위해 기업에서 발행하는 SHE 보고서 또는 Sustainability 보고서의 경우 안전, 보건 및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재해 및 대기/수질 오염 등 안전, 보건 및 환경 모든 분야의 문제로 발전된다.

SHE 통합시스템의 개념

최근 2004년 6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EU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안전한국 심포지움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OECD에서 위임 받은 SHE&Q의 통합모델에 대한 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 제안된 SHE&Q 모델 개발 방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HE&Q 통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모델의 구조는 SHE&Q 개별 경영시스템이 ISO 9001, 14001, OHSAS 18001 등 유사한 경영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착안하여 이러한 각각의 경영시스템이 갖고 있는 지속적 개선을 위한 PDCA Cycle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C,A 각 단계에 걸쳐 SHE&Q의 핵심요소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SHE&Q 통합모델 개발에 대한 검토는 현재는 초기단계로서 점차 진일보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SHE 통합 시스템의 개념은 상기의 구조에서 Q를 제외한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SHE 통합시스템의 도입사례

국내외 SHE 또는 SHE&Q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화학회사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이 통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내외 일부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기업의 경우는 LG칼텍스정유, 삼성아토피나, 호남석유화학, 제일모직, SK 등의 기업에서 회사 규정체계를 ISO 9001, 14001 및 OHSAS 18001 등의 경영체계 요건을 감안하여 각 사의 특성에 맞게 재정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SHE 분야의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해외 일류기업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보면 ExxonMobil의 경우 SHE가 통합되어 11개의 요소로 구성된 OIMS (Operation Integrity Management System)를 개발, 운영하고 있었으며, BP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SHE 통합시스템을 13개의 핵심요소로 구분하고 있었고 Bayer의 경우 역시 BAIT(Bayer Assessment and improvement Tool)라는 16개의 요소로 구성된 자체 개발 SHE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다.

〈표 1〉의 각 기업간의 SHE 통합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보면 용어 사용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야를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실행함을 알 수 있다.(15페이지 표 참고)

이외 대부분의 다국적 화학기업들 역시 자체적으로 SHE 또는 SHE&Q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SHE 통합을 위한 RC의 역할 및 제안

현재 국내에서 채택된 Responsible Care실행지침은 공정안전, 근로자의 안전보건, 비상대응 및 오염방지 4개 분야로 SHE 통합시스템의 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RC의 실행지침은 기존 안전, 보건 및 환경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게는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RC의 실행지침이 자연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SHE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업 또는 기존 SHE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에게는 RC 실행지침을 이행하면 SHE 경영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도입 또는 보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현재의 RC 실행지침이 SHE 통합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RC의 향후 추진방향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유통, 지역사회의 인식 및 제품책임주의 코드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RC실행지침은 상기 세가지 코드가 제외되어 있음에 따라 완벽한 SHE 통합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는 RC 실행지침 자체평가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외 기업의 SHE 통합시스템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의 경향은 SHE를 통합한 핵심요소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의 리더십이라 하면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가 각각 따로따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가 되도록 Element가 구성되는 것이다.

현재 RC 실행지침의 경우는 각 실행지침마다 경영자의 리더십, 교육훈련 등 동일한 요소와 중복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행지침은 현행을 유지하더라도 자체평가 기준은 최근 SHE경영시스템의 PDCA 사이클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업의 실정을 감안한 유연한 자체평가 기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SHE 통합을 위한 RC의 효용성

RC의 도입 및 실행이 SHE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 지침 및 운영방법 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아갈 경우 RC 실행에 따른 효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RC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전, 보건 및 환경을 포괄하는 기본방침과 실행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의 실행은 각 사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기준을 정한 후 이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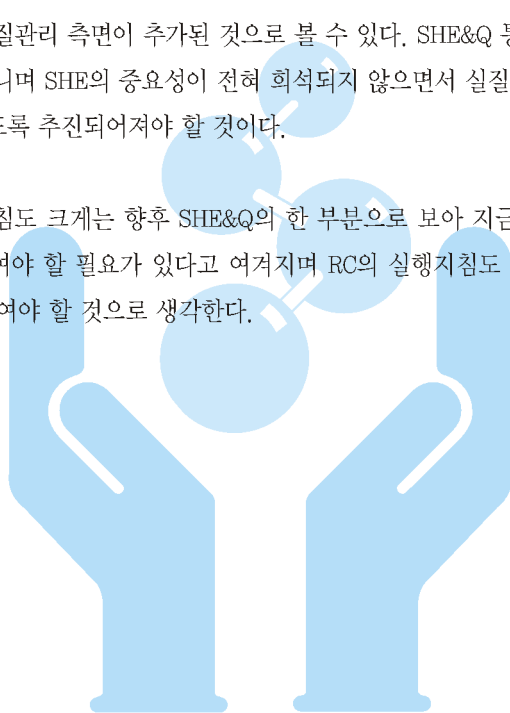
이러한 RC의 실행체계는 ISO 등 국제적인 SHE 경영시스템의 요건을 자체 실행기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국내 PSM/SMS와 같은 법적 요구도 충족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RC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각 사업장의 SHE 통합시스템으로 사용되어 조직 구조의 개선,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문서의 간소화, 운영비용의 절감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재해 달성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화학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다.

SHE&Q 통합시스템과 RC와의 관계

SHE&Q 통합시스템은 RC에 품질관리 측면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HE&Q 통합은 단순히 전체적인 틀을 갖추거나 규정을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며 SHE의 중요성이 전혀 희석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RC의 실행지침도 크게는 향후 SHE&Q의 한 부분으로 보아 지금부터 SHE&Q 통합시스템 모델개발에 화학산업계가 적극 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RC의 실행지침도 향후 지속, 보완되어 실질적인 통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Responsible Care 검증제도



최근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에서 RC14001을 통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Responsible Care 활동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제화학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의 정의에 따르면, 검증(verification)이란 "Responsible Care의 측정가능한(또는 실제적인) 요소들에 대해 회원사의 실행을 확인하는 체계화된 절차"를 말한다.

검증 방법에는 회원사의 자체평가, 타회원사에 의한 검증, 또 인증기관 등에 의한 제 3자 검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 의한 '제 3자 검증'이다.

제 3자 검증이 화학기업의 RC 활동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RC가 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변화되면 윤리와 자발성, 화학기업 공동의 노력과 상호 지원 등 RC의 핵심적인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한국RC협회는 회원사의 RC 실행에 대한 제 3자 검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주요 RCLG 회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RC검증제도에 대해 CAREline(Issue 31~34) 및 금년 상반기 중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 브라질 ABIQUIM

'VerificAR'이라는 검증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검증팀은 ISO 인증심사원, 다른 회원사의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2003년 1월부터 상파울로 등 전국의 주요 지역에서 1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검증팀에 참여할 수 있는 auditor 자격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검증은 사업장(site), 자회사(corporate offices), 이해관계자, ABIQUIM 등 4개의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장 및 자회사에 대한 프로토콜은 회사가 RC 실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체크한다. 이해관계자 프로토콜에서는 고객, 공급자, 협력업체, 유통업자, 비상대응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 인근 지역주민 등에 대한 사항들을 질문한다. 끝으로 ABIQUIM 프로토콜은 회사와 사업장이 매년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 RC Commitment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점수 산정은 패널 토의, 직원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인터뷰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검증을 마치면, 회사는 최종 점수, 보고서, '인증확인서(completion certificate)'를 받게 된다. 보고서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 점들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 칠레 ASIQUIM

2001년 RC Award와 연계된 검증 절차를 도입하였다. 즉 RC 시상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단에서 결정한 상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제 3자 검증을 실시한다. 2002년에는 5개사가 참여하여 이 중 4개사가 검증을 마쳤다. 검증팀은 감사, NGO, 화학기술자, 지역사회 대표자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증팀은 공장을 감사하고, 경영자와 근로자, 이웃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검증결과 및 재검증의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회사와 논의한다.

◆ 미국 ACC

2002년 RC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서 RCMS(Responsible Care Management System)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RC14001로 불리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RCMS 및 RC14001에 대해서는 제 3자 인증을 실시하며, RC14001를 통해 ISO14001, EMS, RC에 대한 인증이 모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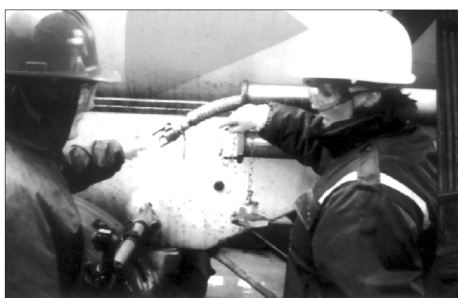
ACC는 인증 절차를 위해 외부의 두 기관(RAB; Registrar Accreditation Board, BEAC; Board of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Auditor Certifications)과 협력하고 있다. RAB 및 BEAC는 심사원들이 ACC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RC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한다. ACC는 각 회원사가 RC 실행에 대해 3년마다 제 3자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뉴질랜드 NZCIC

1996년 6권짜리 RCMS(Responsible Care Management System)를 제작하는 한편, 전문심사원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PRINCE(Premises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ccreditation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PRINCE는 RC 및 뉴질랜드의 법규, ISO9000, ISO14001 시리즈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한다. 업종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화학공장의 경우는 1년, 운송업은 18~24개월, 소매업은 3년이다.



◆ 호주 PACIA



호주는 2000년 이전부터 회원사의 자체평가 시스템과 무작위 외부 감사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는 3단계 검증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각 회사가 자사의 RC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자체평가(Self assessments), 회원사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보고한 결과를 확인하는 외부검증(External verification), 회사의 RC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감사의 모든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는 인증(Certification) 제도를 준비중이다.



또한 보다 강력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인증 및 감사를 통과한 회사들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기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영국 CIA

1998년 RCMS(Responsible Care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모든 회원사가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RCMS는 ISO14001, EMAS, ILO-OHS2001, OHSAS18001 등 국내외 환경·안전·보건 기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전과정책임주의(Product Stewardship), 유통, 비상대응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 3자 인증은 CIA가 승인한 영국 내 BSI, Lloyds, SGS Yarsley, DNV, CCS 심사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CIA RCMS 인증원은 기본적으로 ISO14001이나, EMAS 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일본 JRCC

2002년 4월 검증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검증센터(Verification Center)에서 제 3자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사에 대해 검증을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약 20개사가 검증을 받았다. 특히 검증원의 자격과 훈련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JRCC의 검증원들은 대부분 회원사에서 오랫동안 RC를 담당한 전문가들이다.



투명성을 위해 학계, 노동조합, 소비자, 제품사용자 등으로 Verification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여, 검증 절차를 모니터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CAIA

자체평가 조사서를 기초로 7개 실행지침 분야에 대한 제 3자 감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토콜은 ISO14000 및 남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환경·안전·보건 감사 시스템인 NOSA의 요건들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2년 내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이 실시되면, 감사팀은 ISO14000, OHSAS18000, NOSA system 및 Responsible Care 이행을 감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주게되며, 회사는 다양한 검증 및 인증 절차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태국의 경우는 제 3자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한 뒤에도 회원사의 자발적인 이행을 장려할 계획이다. 스페인은 협회에서 고용한 전문가(주로 RC 업무에 정통한 화학기업 근로자)들이 '제 2자 검증(second party verification)'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0월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에서 제 3자 검증 또는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2개 국가 중에 3개 국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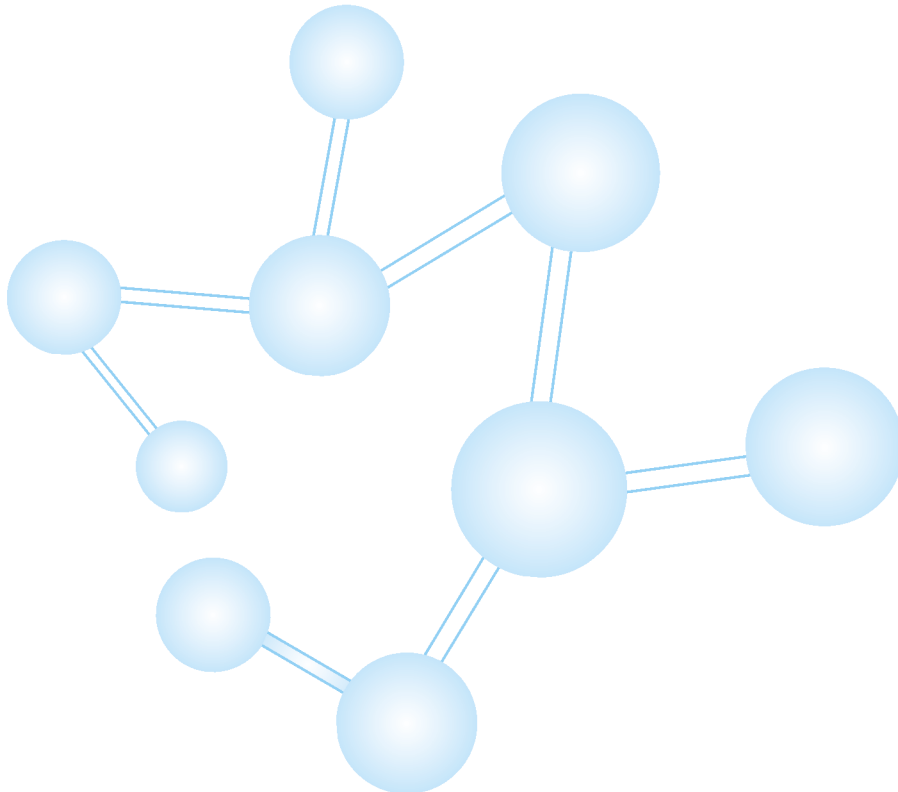
〈RCLG 회장 호세 마리아 바흐〉
RCLG Chairman Jose Maria Bach

현재 제 3자 검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해 세계 각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Responsible Care Charter*'에서는 RC단체와 기업이 외부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 회장 호세 마리아 바흐는 2003년 태국회의에서 제 3자 검증의 도입이 결국은 해야 할 일(It is a question of 'when')이라며 그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RC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한 외부 검증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리 : KRCC 사무국〉

*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가 제조단계에서 RC를 통한 환경·안전·보건 성과를 인정하는 한편, 화학제품의 사용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 지속가능발전 등 새로운 과제의 이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성과 개선의 방법과 검증, 상호 지원, 국제적 이행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년도 RCLG 총회를 거쳐 향후 각국의 RC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화석유화학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수상



한화석유화학(대표 : 허원준)은 6월 3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04년 국가환경친화경영촉진대회'에서 우수한 환경경영 시스템과 청정생산실적을 인정받아 종합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한화석유화학은 1990년부터 환경·안전 경영의 핵심 요소로 관리해 왔으며, 엄격한 자체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전사적인 환경·안전·보건 운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범규제치의 30%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제품과 기술개발에도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폴리미래 직원가족 초청 공장방문 실시

폴리미래(대표 : 조진욱)는 6월 10일 "직원가족 초청 공장방문"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일터를 가족들에게 개방하고, 근무환경 및 회사의 전망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근로자 및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학공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진욱 사장은 환영사에서 "가족 여러분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더 좋은 일터,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밖에서 보도매체를 통해서만 접해온 화학 공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환경친화적이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의 공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 삼성아토피나 '그린봉사단' 출범



삼성아토피나(대표 : 고흥식)는 6월 25일 기존의 봉사활동(성화봉사단)을 확대 개편한 '그린봉사단'을 출범하였다. '그린봉사단'은 고흥식 사장이 단장을 맡고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활동해 오던 직원 및 가족 봉사동아리를 조직 내로 편성함으로써, 전임직원과 가족, 퇴직자 등 총 3천여 명이 40여 개의 각 단위 봉사팀에서 체계적인 지원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봉사단은 10대 실천과제로서 농촌지역 사랑의 집 짓기, 사랑의 걷기 대회, 꿈나무 과학교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지원, 바다정

화활동 등을 선정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고흥식 사장은 발대식에서 "사회공헌활동은 경영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